

<2013년10월26일 토요일 새벽말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월명동에 돌을 가져다 놓는데 참 난관이 있었습니다. 큰 돌을 갖다 놓고 싶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 보면 산꼭대기에다가 한 100톤, 150톤을 가져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설인지 신화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돌을 파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갖다 왔는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라, 다시 말하면 불가사의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룡태로 잡아서 산 밑에다 올려놓고 사람들 수만 명이 잡아당겼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금 나무를 심어서 꼭 짚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각 못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최대로 큰 돌을 가져다 놓은 것이 104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도 그 후에 하나님께 계속 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12살 때에 동네 논에 있던 것을 파간다고 했을 때 파간다고 해서 파온 돌입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파간다고 했으니까, 내 말은 다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파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온 것이 104톤인데 아주 어렵게 해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운동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로 이 돌입니다. 원래 ‘백사바위’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백사 바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백 뱀인데 백뱀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104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굴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드시피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아주 사람의 근엄한 얼굴입니다. 코가 있고, 밑에 입이 있고 이렇게 사람 같은 모습이고, 뭘 큰 것을 뒤집어쓴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신비한 그런 큰 얼굴, 큰바위얼굴이 나와서 “이것이 전설을 이루는 큰바위얼굴이다. 선생님 얼굴이 아니냐?” 해서 큰바위얼굴로 이 바위가 상징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얼굴이 있고, 또 이쪽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가 있고 여기에 눈이 있고 여기에 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바위 얼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다. 하나는 신의 얼굴, 하나는 선생을 상징하는 얼굴이 아니냐.” 해서 이 바위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갖다 놓기 전이었습니다. 월명동에 큰 돌을 갖다 놓은 것이 얼마나 큰가 하면, 내가 그 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돌입니다. “오직 하나님” 돌은 거문 예석에 갔을 때에 세워놓은 어마어마한 돌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손가락 돌’을 계시 받고 갔을 때, 입구에 가보니까 자랑하려고 맨 앞에다 진열해 놓았었습니다. 이 돌을 보고 내가 “예수님! 이 돌, 이거 내가 사가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라고 써놓게요.” 오직 주님과 하나님, 먼저는 주님과 하나님 돌이라고 이렇게 써 놓을 테니까 이거 내가 사갈 거라고 침을 싹 발라 놓았습니다. 이 돌에다 딱 침을 발라서 딱 찍어놨습니다. 내가 꼭 사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남자 제자가 몇 명 따라갔었는데 아마 상진인가 픽 웃으면서 “저건 이제 선생님이 갖고 간다.” 했습니다.

그것을 찍어놓고 그날 가서 한 30~40개 돌을 물어보니까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돌 안 사가냐”고 하기에 그 돌을 가리키면서 “저 돌은 얼마요?” 했더니 “이것은 1500만원이요.” 그랬습니다. 원래 1500만원이 아니고 2300만원 줘도 안 판다고 했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돌을 안 사가니까 약간 화도 나고 겸사겸사 ‘저 사람은 이래도 못 사간다.’하고 딱 그 값을 부른 것입니다. 내가 “100만원만 깎아주슈.” 그러면서 차를 타니까 “그래요.” 그냥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200만원을 딱 주면서 “내가 사가겠습니다. 돌 하나만 사가서 미안해요.” 하니까 “아니 진짜 사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 진짜 사가지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 때문에 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써 달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거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라고 붓펜글씨 써주고 왔습니다. 이놈을 써 왔나 다시 갔습니다. 가보니까 써왔길래 이놈을 싣고 오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돌은 작업하면서 여러 번을 놓쳤는데 ‘오직 하나님’이 안 깨지게 했습니다.

이 돌을 그렇게 큰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씨는 금입니다. 금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역시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철학을 가지고 있지요? 급할 때만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예 그것은 버릇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급할 때만 찾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야 됩니다.

이 돌이 그렇게 큰 돌인데 “하나님, 나로서는 큰 돌은 이런 돌밖에 못 갖다 놓는데, 성지 땅을 이렇게 크게 개발했는데 하나님도 선물 하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선물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고 큰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전부 이것을 했는데 또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보다 다르기 때문에 큰 돌을 갖다 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얼마짜리?”

“수백 톤짜리.”

현재에 있는 장비로는 평지도 200톤 이상을 싣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트레일러라고 12발짜리 긴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200톤 이상을 못 싣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느 절간에서 부처상을 새겨서 갖고 가는데 그것이 200톤인데 평지에서도 스프링이 부러지고 해서 잘 못 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갖다 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차원을 높여서 수백 톤짜리를 갖다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한다. 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니까.” 그랬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 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광야 땅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습니다. 낙심치 않고 계속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기념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멋있는 돌 좀 갖다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큰마음 먹고 가져다 줄 것으로 알았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느 회사든지 감동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하면 가서 열심히 차 대접하면서 만났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 “저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비행기로 실어다 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지혜가 왔습니다. 쯤하고 지혜가 왔을 때 그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낙타 돌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로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거기 감나무 밑에서 항상 잘 쉬었습니다. 감나무 밑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감나무 밑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낙타 돌을 잘 보십시오. 이 끝이 조금 시커멓지요? 이곳이 햇빛을 본 곳입니다. 이 만치가 나와 있던 돌입니다. 이 끝이 손톱만큼 보이지요? 손톱보다 조금 크지요? 시커먼 곳, 여기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허연 데는 땅에 묻혔던 곳입니다.

여기 밭을 가는 우리 윗집의 주인이 항상 쟁기 받친다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쟁습니다.

“야, 명석이. 이리 와봐.”

“왜요?”

“야, 여기 좀 붙잡아줘라.”

“뭐해요?”

“이 돌 좀 깨려고 그런다.” 해서 같이 쟁습니다. 툅 툅 쟁습니다. 조그만치 여기 끝이 깨졌지요? 이것이 어렸을 때 내가 같이 쟁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자꾸 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막 감동이 오는데 불같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자꾸 무엇을 삶아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막 감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인간에게 올 때는 감동으로 온다고 했지요? 감동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 사람을 다룰 때도 감동할 때 얼른 가보고 얼른 처리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감동이 올 때는 얼른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하는 형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이것을 해서 될 것인가?’ 하고 계속 확인하는 형입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내가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내니까 커졌습니다. 완전히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만며느리 히프처럼 자꾸 넓어졌습니다. “야, 크다. 이거 크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이거 파자.” 해서 그때 파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크게 됐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한 500톤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적어도 300톤은 넘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것이 낙타바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잘못 찍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둥이가 새 주둥이같이 나왔는데 사실상 낙타 주둥이 같이 생겼습니다. 낙타 앞다리 근육통, 그리고 이것은 암 낙타입니다. 낙타는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타고 왔지요? 이것을 상징한 벽화입니다. 이것은 암낙타, 이 옆에는 수낙타입니다. 정확하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낙타 바위 사이에다가 자연 굴을 파려고 했습니다. 이 돌을 뒤집어쓰고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두 돌이 붙어있었습니다. ‘역시 한 쌍의 낙타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파기 위해서 이 새파란 잔디밭을 저 끝에서부터 지대를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이 이렇게 멋있게 된 것입니다. 썩 먹고 알 먹고 하듯이

역시 잔디밭도 멋있게 만들어지고, 낙타 돌도 큰 서편의 벽화인 낙타 벽화가 딱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구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갖다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우리는 끄끙 거리고 갖다 놓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그대로 눈에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줘어도 지혜롭게 계속 수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 무막대기로 파라고 했더니만 내가 어디 간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막 파내서 꺾대기를 벗겨냈습니다. 급하다고 얼른 파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혼났습니다. “이렇게 급하면 되겠냐? 하나님 작품인데. 몇 년 가야 상처가 없어지겠다.” 해서 지금쯤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래서 구해서 얻었다. 구해서 그 돌을 얻게 된 것이다. 늘 구해서 얻은 것이지 그냥 일어나서 된 일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녕을 고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악수할까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부지런히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고 구하고 찾고 얻어서 쓰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쓰고 섭리와 같이 쓰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하고 충만할 지어다. 아멘.